

《20세기 초 한학 및 서예 시각에서 본 『어석(語石)』의 일본 전파

송설운학(북경어언대학)

초록: 엽창치(葉昌熾)의 《語石》은 중국 최초의 석각 통론 저작으로 평가받으며, 그 일본어 번역본 《支那金石書談》은 후지와라 초스이(藤原楚水)가 번역했으나 중국 내에서는 관련 자료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支那金石書談》을 단서로 일본 학자들의 《語石》 평가를 결합하여 이 책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굴한다. 《廣藝舟雙楫》과 《語石》의 일본 수용과 전파의 이동(異同)을 비교하고, 나카무라 후세츠(中村不折)를 대표로 하는 일본 서법가와 학자들이 강유위(康有爲)와 엽창치의 비학(碑學) 이론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탐구하여, 중국 내 비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語石》, 《支那金石書談》, 후지와라 초스이, 《廣藝舟雙楫》

1. 《支那金石書談》의 번역 배경

《語石》의 일본어 역본 《支那金石書談》은 쇼와(昭和) 기사년(1929년)에 출판되었으며, 이에 앞서 중일 문화교류가 이 책의 전파에 계기를 제공했다. 비첩 탁본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각계에서 '탁본'이라는 새로운 자료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도 레이잔(井土靈山)이 대량의 서론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1871년 《중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중일 문화예술 교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조약은 양국 민간 호혜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아편전쟁 이후 첫 번째 상대적으로 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는 서법과 한학에 심취한 학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배움

을 구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으며, 청 정부의 주일 영사들도 문화교류를 촉진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사례로는 기타카타 신센(北方心泉)과 마루야마 다이우(圓山大迂)가 상하이로 가서 서삼경(徐三庚)에게 전각을 배운 것이 있다.

유명한 "양수경 선풍"이 일본에 도달하여 새로운 풍모를 가져왔다. 양수경(楊守敬)은 일본 체류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학생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훗날 메이지 시대의 거장이 된 구사카베 메이카쿠(日下部鳴鶴), 이와야 이치로쿠(岩谷一六) 등이 있었다. 양수경이 일본 서단에 준 충격은 새로운 자료에 있었다. 당시 일본인들이 접촉한 비각은 대부분 쌍구본(雙鉤本)이었기에, 먹 탁본으로 복제된 석비를 감상하는 것은 극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1877년 나카바야시 고치쿠(中林梧竹)는 당시 청 정부 주 나가사키 총영사 여원미(余元眉)로부터 법첩을 얻어 북조 서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1880년 여원미의 소개로 중국으로 건너가 양수경의 스승 반존(潘存)에게 금석 서법을 배웠다. 비첩 탁본의 실물은 서가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학자들도 탁본 이론에 관심을 갖게 했다.

수장품으로서의 비첩 탁본도 이로 인해 인기를 얻게 되었다. 나이토 코난(內藤湖南) 등이 중국을 방문하여 책을 구할 때, 금석 탁본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신해 혁명 이후 그는 중개인 역할을 하여 만청 유로들의 소장품을 하라다 하쿠분도(原田博文堂), 다나카 분큐도(田中文求堂) 등의 중간 상인에게 팔게 했고, 간사이 지역의 재벌들이 많은 명품을 수집하게 되었다. 《支那金石書談》에 서문을 쓴 나카무라 후세츠의 탁본 소장품도 이때 구입한 것이다.

《支那金石書談》 이전에 이도 레이잔은 《畫禪室隨筆》, 《續書譜》 등의 서론을 차례로 번역했다. 일본 학자들의 논의도 끊이지 않았는데, 1909년 나이토 코난, 나카무라 후세츠, 카와이 센로(河井荃廬)가 《國民新聞》 잡지에서 논쟁을 벌여 비학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이쇼(大正) 갑인년(1914년) 나카무라 후세츠는 이도 레이잔이 강유위 《廣藝舟雙楫》의 일본어 역본 《六朝書道論》을 출판하는 것을 도왔는데, 도판과 일본 서가 이론을 추가하여 《支那金石書談》 번역에 좋은 모범을 제공했다.

2. 《支那金石書談》의 개황

《語石》의 일본어 역명은 《支那金石書談》으로, 중국 내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원판과 비교하면 일본어 역본은 네 곳에 변화가 있다: 서문, 도판, 주석 및 "인용비목일람"을 추가했으며, 후지와라 초스이가 번역하고 대동서원(大東書院)에서 간행하여 쇼와 기사년(1929년)에 출판했다.

1) 도판

역본은 원서의 목차를 보존하고 분목 명칭을 바꾸지 않았으며, 뒤에 한문 삽화 목록이 있어 총 104쪽이다. 두 가지 기록 방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모모서(某某書) 형식으로 주희서(朱熹書), 채군모서(蔡君謨書) 등이고, 두 번째는 찬문자 또는 서자의 성명과 서체이다.

2) 미주(眉注)

책의 번역문은 일본어로 세로 배열되어 있고, 한문 전문 명사에 미주를 더하고 삽화를 첨부했다. 미주는 주로 인물, 지명, 전고 등을 포함하며, 엽창치 원문의 인용문을 복원했다. 비각 옆에 숫자를 표시하여 《인용비목일람》에서 검색할 수 있게 했으며, 심지어 엽씨가 언급했지만 명확하게 비명을 제시하지 않은 것들도 부록에 포함시켰다.

3) 후부 비목

《인용비목일람》은 목차별로 해당 목 아래 언급된 비각을 나열하고, 정문과 대응하도록 번호를 표시했다. 번호 아래에는 비명이 있고, 입비 지점을 명시하며, 작자, 서체, 연대 또는 어떤 학자가 어느 연대로 고증했다는 등의 정보를 비명과 입비지 사이에 배치했다. 다음 행에는 작은 글씨로 관련 자료를 보충했다. 자료가 상세하고 여러 설을 병렬하여 나열하며 문헌을 널리 인용했다.

3. 일본 학자 서문으로 본 《支那金石書談》의 가치

《支那金石書談》에는 후지와라 초스이, 나카무라 후세츠, 간다 기이치로(神田喜一郎), 히구치 도규(樋口銅牛) 네 사람이 서문을 썼다.

1) 서학과 한학 사이

일본의 학자형 서법가들은 서법에 능하고 한학에 통달했으나, 메이지 이후(1868-1912) 양자는 전문화되기 시작했고, 다이쇼 시기(1912-1926)에 이르러 문화 연구로서의 한학과 서법이 점차 분리되었다.

간다 기이치로는 청대 금석 저작이 목록에 치우치거나 의리를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엽씨는 종파를 개창하려는 의도로, 체례와 목록의 각도에서 《語石》을 극찬했으며, 내용은 전통 한학에 가깝다. 한학자 간다는 비첩 유파를 벗어나 목록학에서 《語石》의 체례 혁신을 긍정했다.

2) 《廣藝舟雙楫》에 대한 양기(揚棄)

나카무라 후세츠(1868-1943)는 강유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순화각, 희흥당 법첩 등 "악각(惡刻)"을 배우는 것으로는 한위(漢魏)를 직접 추구할 수 없고, 비갈(碑碣)이야말로 위진 풍도를 추구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는 청대의 《竹雲題跋》, 《金石萃編》 등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語石》 기록의 정확성을 칭찬했다.

히구치 도규의 서문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는 《語石》 번역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석각의 가장 신뢰할 만한 저작으로 여겼지만, 후지와라의 개명이 이도 레이잔이 《廣藝舟雙楫》을 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난스럽다고 생각했다.

후지와라는 서문에서 개명에 대해 설명했다. 학계는 비갈 외의 석각에 익숙하지 않고, 최근 출토된 목각, 봉니 등은 금석으로 개괄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고학, 풍속 등과 관련되어 서법으로도 개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어

《語石》의 학술적 가치는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일본어판 서문은 비각 수록의 진실성과 정확성, 이론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여 감별

능력을 높일 것인지를 지적했다. 일본어 역본의 비각 고증은 중국어 연구 자료에 부족한 부분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